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설계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축과학기술성과전시장, 건축설계연구실, 설계문헌실, 정보자료연구실, 내정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현행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건축과학기술성과전시장에 전시된 성과자료들은 백두산건축연구원이 창립후 오늘까지 수많은 기념비적건축물대상설계를 훌륭히 진행하였으며 건축과학과 환경위생,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5.21건축축전과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건설건재부문과학기술발표회 등 국내축전 및 과학기술발표회와 국제적인 발표회에서 특등, 1등을 하였으며 수백건의 국가과학기술성과등록증과 국가발명증서 등 기술혁신증서를 받았을뿐만아니라 수많은 학위학직, 명예칭호소유자들을 배출한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하시였다.

연구원의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지난 기간 중요대상건설이 제기될 때마다 당에서 맡겨준 설계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은 실력있고 믿음이 가는 설계집단, 우리 나라 건축설계단위의 본보기, 기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건물정보모형화에 대한 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시고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세계건축설계의 추세에 맞게 건물의 모든 구성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다차원모형인 건물정보모형화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시였다.

최신형콤퓨터들을 리용하여 건축설계를 진행하고있는 설계가들이 당에서 보내준 설계수단들이 현대적이여서 정말 좋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그전에는 며칠이 걸려야 할 설계도면을 지금은 몇시간동안에 척척 그려내고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새로 갖추어놓은 대형광폭인쇄기, 복합형인쇄기 등의 기술적특성과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현대적이고 최신식이라고, 건축부문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성과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널리 받아들여야 현대건축창조에서도 세계를 앞서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건축설계에서 류사성과 반복은 금물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건강건물, 록색건물, 령에네르기, 령탄소건물, 다기능화된 건물 등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데 대한 문제,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건재품을 적극 리용할수 있도록 당의 국산화방침이 구현된 설계들을 내놓을데 대한 문제, 건재품의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설계가, 건축가들의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현대적설계수단들을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등 연구원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앞으로도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옹호고수하며 사회주의문명개화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최고령도자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3월8일혁명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서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테로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내주고계시는 당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의 원칙적립장을 평가합니다.

당신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7년 3월 9일 디마스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숙천군 룡덕리, 금풍리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숙천군 룡덕리와 금풍리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각각 진행되었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들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6(1957)년 3월 10일 숙천군 룡덕리의 룡덕농업협동조합을 찾으시여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산작업을 기계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며 조합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풍리(당시 기은리)의 원사동농업협동조합에도 들리시여 당원들이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조합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과수와 양어, 수산, 축산을 실정에 맞게 잘 짜고들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후 농민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살림집건설용목재들, 많은 생활용품들도 보내주시면서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갓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강화발전시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우리 식으로 완성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고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60년간 농장들이 끊임없는 강화발전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랭상모를 적극 도입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해마다 많은 알곡을 생산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또한 탈곡장들을 훌륭히 건설하고 정미소와 농기계들을 자체로 수리정비할수 있는 기지들을 번듯하게 꾸려놓았으며 농장마을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 비약하는 사회주의강성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켜 모든 농장원들이 다수확운동에서 영예로운 혁신자, 만리마속도창조자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들은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발휘한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자

자강도, 량강도, 라선시군중대회 진행

【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자강도, 량강도, 라선시군중대회가 9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은 당의 령도따라 천만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는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끊임없이 울림으로써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들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자!》, 《전민총돌격전》, 《자력자강의 위력》을 비롯한 구호판들과 글발들,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대회들은 시작되였다.

자강도에서

자강도군중대회에서는 김재룡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랑독한데 이어 일군들을 대표하여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형근,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강계시 야하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김현순,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강계제2사범대학 교원 신정철 등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언제나 당정책결사관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려온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호소문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오늘의 창조대전에서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피와 땀,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강원도인민들처럼 도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정책을 몸이 천조각, 만조각이 난대도 결사관철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70일전투,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열의를 계속 고조시켜 강계청년발전소와 전천탄광을 비롯한 전력과 석탄전선에서 증산의 동음높이 한kW의 전력, 한t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년간 농업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축산, 남새, 버섯, 양어기지들을 활성화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질좋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 인민생활향상의 흐뭇한 결실들을 더 많이 안아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희천초등, 중등학원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하고 흥주청년4호발전소, 도체육관건설과 장자산소년단야영소, 도예술극장개건공사 등 대상건설을 앞당겨 끝낼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강계교원대학 기숙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것을 비롯하여 도안의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고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거리와 마을, 일터를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중대회에서는 리상원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랑독한데 이어 일군들을 대표하여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성국,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림업관리국 국장 유치정,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삼지연군 보서농장 관리위원장 윤태수,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도과학기술련맹 위원장 박관혁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러운 선구자들인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접한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충정의 맹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태양의 성지에서 사는 끝없는 영광을 가슴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과 지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혁명식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그 승리도 과학이라는 신념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줄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과감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전투목표를 반드시 앞당겨 수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며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을 제기일에 무조건 완성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림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우리 당이 채워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상반년안으로 년간 통나무생산계획을 해제끼며 혜산림업기계공장을 개건하여 각종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대홍단식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감자농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며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도앞에 맡겨진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지니고 도안의 시, 군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문명하게 꾸리며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의도대로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새 기술연구와 도입에 힘을 넣어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군중대회에서는 림경만 라선시당위원회 위원장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랑독한데 이어 일군들을 대표하여 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정호,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라선청년발전소 지배인 량기춘,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라선시 후창농장 관리위원장 최동혁,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라진해운대학 부학장 남상훈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라선시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분수령으로 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불태우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라선경제무역지대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세계를 압도하는 첨단수준의 눈부신 성과들을 쉼없이 창조하며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국산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충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에서 앙양된 열의를 계속 고조시켜 라선청년발전소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라선가방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에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팡팡 생산할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축산과 과일, 버섯, 남새, 양어기지들을 활성화하고 수산부문에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려 황금해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생물공장, 김치공장을 비롯한 올해에 계획된 건설대상들을 기어이 완공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들은 끝났다.

이어 군중시위들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자력자강의 위력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 라선시에서 -